

살림정치 초록정치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을 좌지우지할 사람들을 다시금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시민사회에 일고 있다. 여성들은 우리들 살림이들이 꿈꾸고 있는 초록정치를 일궈내기 위해 '살림정치 여성 행동'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행동에 들어섰다.

살림이란 살려낸다는 것, 살림한다는 것, 보살핀다는 뜻이다. 정치란 국민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왜 살림정치냐고요? 오늘의 정치가 국민의 안위는 눈감은 채 정쟁만을 일삼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절대다수의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등으로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들은 정치를 살려 불안과 위기감에 짓눌려 있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살림을 이끌어내는 일에 새 물을 대려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왜 또 여성이 살림이냐고요?'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은 다른 가치를 담지한 새로운 힘에 의해 가능한데 오늘의 여성들이 바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것은 여성들이 지난날 살아온 삶의 경험과 겪은 아픔을 통해 체득한 살림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고 지금까지 여성들이 그 가치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해 지금까지 잠재력으로만 남아 있는 데서이다. 생물학적인 여성이면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초록정치의 꿈을 가진 여성들이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의 몫이지만 그 정치가 오류를 범하면 시민사회가 바로잡아야 하며 올바른 정치인을 선별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정치문제를 우리가 뒷전에서 관망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2008년 10대 소녀들이 커든 촛불행렬에 줄이은 유모차 엄마들과 하이힐 직장여성들이 갈망했던 생활정치, 가치정치, 시민정치, 그리고 살림정치 구현에 초록정치 살림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간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성들이 달라졌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